

제공일자	2013. 6. 11(화)	담당자	김해식 연구위원, 조재린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41 02-3775-9034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김해식·조재린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향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화하고, 회계·상품·가격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을 제시
-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정량평가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접근방식이 달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, 정량평가를 보완할 정성평가의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
- 또한 준비금과 보험료에 관련된 회계, 상품, 가격 등에 대한 규제와 자본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로드맵 제시가 필요

□ 보험연구원은 12일(수) 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”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.

-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, 국내 RBC 제도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.
- 제1주제는 “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”으로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이 발표하고, 제2주제는 “국내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”로 성균관대학교 이항석 교수가 발표함.
- 주제 발표 이후 정요섭 교수(한양대)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업계, 학계, 감독기관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.

재무건전성 규제, 정성평가 강화와 통합 관점의 로드맵 제시 필요

- 김해식·조재린 연구위원은 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로부터 첫째,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간 조화를, 둘째, 자본규제와 준비금, 보험료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을 통한 통합 관점의 건전성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
- 금융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**2014년까지 RBC 요구자본량을 높여**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.
 - 금융감독당국은 Solvency 2를 벤치마킹하여 보험위험과 금리 및 신용위험에 대해 산출계수 신뢰수준을 95%에서 99%로 상향하는 계획을 시행 중임.
 - 또한 고금리경쟁을 억제할 목적의 **표준이율 인하와 공시이율 산식 개정**과 함께 **준비금의 적정성평가방식**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중임.
- 최근 재무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험회사 위험관리에 대한 **정성평가의 경우 수렴하는 경향**을 보이고 있어 이를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에도 적극 참고하여 **정성평가가 정량평가를 보완**하도록 해야 함.
 - EU와 미국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정량평가에서는 서로 다른 산출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, 보험회사 자체의 지급능력평가(ORSA)에 기초한 정성평가에서는 EU와 미국 모두 유사한 개혁작업을 진행.
 - 국내 건전성 규제의 정량평가는 미국 RBC제도에 기초하여 구축되어 왔음을 고려하면, 향후 정량평가 개선에는 EU와 미국의 정량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 - 반면,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를 통해 정량평가를 보완하도록 하는 추세는 EU와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

- 한편, 자본, 준비금,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 - 현재 보험산업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, 저금리 환경에서 준비금 증가가 예상되는 준비금적정성평가 강화, 그리고 표준이율 등 이율규제와 보험료인상 억제가 동시에 진행 중임.
 - 그런데 이들 제도는 모두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에 직접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RBC비율의 등락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통합 관점에서 이들 규제의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최근의 보험료인상 억제는 장래 보험료의 부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결정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한편, EU와 미국의 건전성규제 추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은 정량평가에 관한 한 “Wait and See”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, 싱가포르 등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진행 중임.
 - RBC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 중 유럽 영업이 활발한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등은 Solvency 2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.
 - 싱가포르 등은 RBC의 부실 보험회사 예측을 보완할 정성평가 강화에 주력
- 따라서 국내 자본규제의 개선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조화가 필요하고, 준비금 및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를 아우르는 로드맵 제시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